



협회소식

NEWS

본회, 제7차 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18일 본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는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 21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의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제반문제와 양돈업계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사회회의는 ▲제1호 의안 : '98추가 경정 예산(안) ▲제2호 의안 : '99회비 부과기준(안) ▲제3호 의안 : '99자조금 부과기준(안) ▲제4호 의안 : '99사업계획(안) ▲제5호 의안 : '99수지예산(안) ▲제6호 의안 : 규정개정(안) ▲제7호 의안 : 지부설립 승인(안) ▲제8호 의안 : 지회에서 지부로 설립 승인(안) ▲제9호 의안 : 검정소운영에 따른 문제처리 ▲제10호 의안 : 회원징계에 관한 건 ▲제11호

의안 : 총회부의안건 등을 심의하였다.

한편 이사회의는 '99년예산을 2,289,160천원으로 '98년의 3,152,304천원보다 863,144천원이 줄어든 72.6% 수준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 사천지부가 지부설치규정 제5조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되어 설립 승인 되었고, 흥천지회, 하동지회는 지부설치규정 제4조4항을 충족함에 따라 지회에서 지부로 설립 승인 되었다.

또한 이사회의에 앞서 본회 노영한 전무는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각 부서장들은 부서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김 대통령, 농축산 관련 지도자 초청 간담

-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 참석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 농수축임업 관련 지도자 1백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재임기간 중 농축산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게 유통구조를 개혁,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산업 사회가 될 것이라며, 양돈업을 예로 들며 "잘 자라고, 맛 좋고, 병도 적게 사육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식사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모임에는 본회 이명복 본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 박순용 축협 중앙회장 등 150여명의 농축산 관련단체 지도자가 참석했다.

본회, 비육돈 지급률 간담회 개최



- (주)한냉 등 방문 지급률 상향 요청키로

돼지 가격의 지급률을 놓고 생산자와 육가공업체 간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본회는 지난 12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비육돈 거래가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한냉같은 기업이 지급률을 64%로 책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하고 12월 21일 (주)한냉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를 비롯, 서울지부 오광철 지부장, 수원지부 윤대열 지부장 등 회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청주지부의 유인종 회원은 (주)한냉이 지급률 63.5~64%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가가 바라는 지급률은 66%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축기연 조사자료에 의하면 도축장 도착 체중 대비 지육체중 비율이 67.9%로 나타나고, 부산물 가격을 공제한 도축비용이 7,200원 입을 감안해도 최소 적정 지급률은 66%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원지부 윤대열 지부장은 "회원 농가들이 암·수 1:1의 비율로 출하시 66%의 지급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돼지만 출하시 지급률은 64%를 기본으로 A급은 2%, B급 1.5%, C급 1%의 별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평균 65.5% 이상의 지급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오광철 지부장은 "수송비를 육가공업체가 1차당 5만원씩 부담하고 지급률은 67.5%를 받고 있으며 결제는 출하 다음날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기업인 (주)한냉이 지급률을 타 업체보다 낮춰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D식품은 지급률을 66%로 하고 있으며, L그룹의 육가공회사는 지급률을 65%로 하고 있다.

제2검정소 경매 100회 기념행사 성료

지난 12월 5일 본회 제2검정소에서 있던 경매 100회 기념행사가 성대히 치뤄졌다.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 정구용 하동군수, 임정근 하동 축산업 협동조합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 가운데 열린 경매 100회 기념 행사에서 본회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경매 100회 행사기간 동안 종돈의 능력이 크게 개량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위생적인 종돈 보급과 검정료 인하 등을 통해 값싼 종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본회는 최다 출품 종돈장과 최다 최우수돈 수상 종돈장인 동림종돈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검정돈 최다 구입지부인 합천지부와 최근 3년간 최다 구입 개인인 이문하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경매 행사에서는 경매 입찰자들에서 장백축산의 임신 진단기 등 9백만원 상당의 축산기자재를 추첨에 의해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99년도 카렌다 및 양돈수첩 배부

본회는 지난 12월 각 지부에 본회의 99년도 카렌다와 양돈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이 카렌다

와 양돈수첩은 전국의 각 지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1부씩 배부된다.

도협의회, 지부 소식

충남도협, 양돈현안 대책논의

충남도협의회(회장:김현병)는 지난 12월 7일 저녁 6시30분에 충남 온양소재 아람 맛고을에서 12월 충남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노영한 전무와 김현병 도협회회장 등 충남 지역 각 지부 전·현직 임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도협회회에서는 최근 지육시세 발표 변동에 따른 적정 지급률 산정 등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대책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본회, 사천지부 설립



정종기

(사천지부 지부장)

본회는 지난 12월 18일 제7차 이사회에서 사천지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사천지부 지부장은 정종기씨, 부지부장은 최호일, 감사 이문상, 조용운, 총무에 남성기씨가 선출되었다.

정종기 신임 지부장은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우석 종돈장, 동립종돈 등의 농장장을 역임하는 등 종돈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현재는 사천군 곤명면에서 모돈 150두의 규모의 "튜파밍" 종돈장을 경영하면서 본회 검정소에 많은 종돈을 출품하고 있다. 정종기 신임 지부장은 "사천 돼지의 명성도 있으나 지부 결성이 늦었다며, 돈콜레라 박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지부, 인공수정센터 건립

안동지부(지부장:김건년)는 지난 12월 11일 인공수정센터를 설립하고 고능력 종돈의 유전형질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센터 설립은 그동안 안동지부 회원 농가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안동지부는 인공수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수정사업센터 사무실을 지부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안동시 정하동으로 이전하였다.

안동지부는 내년 2~3월 경부터 비회원 농가에도 정액판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전화 : (0571)859-0420

□인공수정센터 전화 : (0571)859-0488

청주·청원지부, 정영섭 지부장 선출



정영섭

(청주청원 지부장)

청주·청원지부(지부장:정영섭)는 지난 11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이기만 지부장의 후임에 정영섭 씨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 및 총무에 김승수씨를, 이사에 이기철, 양덕주, 박대석, 장성순, 최원호 씨를 선출했다.

한편 신임 정영섭 지부장은 청원군 농촌지도자회장과 충북 농정포럼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전주·완주지부 카렌포크 시식회 가져

전주완주지부(지부장:이영노)는 12월 지난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렌포크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소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양돈**